

‘도립’때보다 못한 ‘국립’...무등산 관리 엉망

관리공단 이관후 인원 2배 증가 불구
약수터 관리부실 폐쇄에 탐방로 훼손
서석대 탐방로 공사 여론에 밀려 철거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인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 이후 탐방로 훼손이 심해지고, 유령 약수터가 폐쇄되는가하면 대표 절경인 서석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등 도립공원 시절보다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고압적인 자세로 지역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업무행태마저 보이면서 지역민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정했으며, 올 3월 4일 관보 고시와 함께 공식 국립공원이 됐다.

이에 따라 무등산 관리업무도 광주시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며, 현재 122명(정규직 48명)이 근무중이다. 이는 광주시 관리 당시 50명(20명)보다 2배가 넘는 인원으로, 국립공원의 격에 맞게 관리업무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관리 인원만 늘어났을 뿐 도립공원 시절보다 관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 승격 후 3개월만인 지난 6월 탐방객의 마른 목을 적셔주던 꼬

막재와 늦재 등 2곳의 약수터가 관리부실과 물 고갈 등을 이유로 폐쇄돼 무등산에는 현재 7곳의 약수터만 남았다.

탐방로 관리도 부실하다. 공단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 내 61개(153.9km) 탐방로 중 훼손된 곳은 33개 19.08km에 이른다. 특히 광주시민이 많이 찾는 옛길 구간은 훼손이 심각해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게 탐방객의 하소연이다.

시민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광주시는 공단에 옛길 등의 탐방로 정비를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올해 증심사~장불재 구간 정비에 착수했으며, 그 외 긴급한 탐방로를 제외하고는 향후 연차적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지훈(41)씨는 “과거엔 광주시에 알리면 등산로가 곧바로 정비됐는데, 국립공원 승격 이후 정비는커녕 훼손되는 탐방로만 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공단의 시민 정서를 무시한 업무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면에 계속〉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6일 광주시 서구 화정중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받은 뒤 친구들과 함께 시험장소 등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수능은 광주에서 2만1703명, 전남에서 1만9378명이 응시해 10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오늘 수능...광주·전남 4만1000명, 전국 65만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일 오전 8시40분부터 광주·전남 101곳 등 전국 1257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65만 747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775명 감소했다. 광주는 99명 줄어든 2만1703명, 전남은 285명 늘어난 1만9378명이 응시했다.

모든 수험생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과목이 A/B형 선택형으로 치러지고, 특히 영어는 A/B형 선택에 따라 시험장이 분리 운영되므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시험장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능 환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아침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로 1시간 늦춰지고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수험생 입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행한다. 지각이 우려되거나 수험표를 갖고 오지 않은 수험생은 112나 119로 신고하면 경찰과 소방본부에서 긴급 이송해준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 - 최윤식 소장

“시스템 한계 극복 못하면 한국 5년내에 위기 온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전승을 한 이유는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장수들이 겉잡이라고 놀리는 상황에서도 전투를 늦추면서까지 전쟁마다 일어날 수 있는 뜻밖의 사태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지난 5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에서 ‘2030 대담한 미래’의 저자 미래학자 최윤식(43)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리더들은 충무공처럼 뜻밖의 미래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연구하는 리더십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이미 5년 전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해 대한민국을 긴장시켰던 그는 이번 강의에서도 ‘2013~2016년 제2의 외환위기’ ‘삼성의 몰락 가능성’ ‘경제 회복 가시화에 따른 미국의 반격’ 등 충격적인 예측을 쏟아냈다.

최 소장은 “이러한 비극적인 미래가 오지 않도록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5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다가오는 위기에 무덤덤한 한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에 준하는 큰 위기나 GDP(국 내 총생산)의 -5%가 넘는 극심한 경기 후퇴를 겪고 나서야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 개혁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또 한국 위기의 핵심은 ‘시스템의 한계’라며 “지금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시민의식 모두 2만 달러 시스템인데, 4만 달러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솔루션으로 마인드셋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최 소장은 “위기를 잘 알아야 생존의 기회가 있다. 막연히 두려워하는데 그치지 말고 뜻밖의 사태와 모든 상황을 준비할 때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알림

현지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제7회 겨울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 모집



지난 7월 여름방학기간에 실시된 6회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과 현지 학교 친구들.

뉴질랜드 교육부 학교등급에서 만점을 받은 명문 공립 초·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함께 받는 정통영어 어학연수인 ‘제7회 겨울방학 뉴질랜드 스쿨링캠프’에 글로벌시대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는 현지 어학연수 전문교육기관인 한뉴문교류센터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진행합니다.

7회째 실시되는 이번연수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방과후에는 영어회화향상에 도움이 되는 ESOL과 NEAT를 대비한 그룹 수업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연수에서는 엄선된 현지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문화와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최:광주일보사
- 주관:한뉴문교류센터, KJE&T
- 연수학교: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6개 초중학교
- 연수기간: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6일(4주)
- 신청마감:11월 15일까지 선착순 40명
- 연수금액:565만원 (개인용품 불포함)
- 문 의:(062)220-0555, 010-6693-6604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해남팔팔호텔

일출과 일몰, 그리고 다도해가 어우러지는 곳- 바다 위의 휴식처 해남팔팔호텔

하늘과 맞닿은 듯한 위치에 자리 잡은 해남팔팔호텔은 우월한 공공복합공간. 이순신 명랑대천, 송호해수욕장, 팔팔관광단지, 보길도, 달마산, 두륜산도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휴식공간입니다.

영산재·오동재

그 곳에 가면 영산재·오동재가 있다.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의 대청마루에 앉아 차마시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면 차마 끝에 매달린 내 시를 한 조각 바라 되어 멀리 날린다. 긴 세월 영산재와 여수원바다를 휘돌아 오는 청아한 바람만큼은 아름다운 천성이 되어 코끝을 스치고 유달산과 영위산에서 불어져 나오는 맑은 정기는 매미의 나팔을 적시어 새 희망을 잉태시킨다.

해남팔팔호텔 HAE NAM PANGPANG HOTEL 536-924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27-1 Tel.061-530-8000 Fax.061-530-8003

영산재 영산재 1.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신흥읍 나불리 292 2. 예약 및 전화문의: 061460-0300 3. 규모: 객실수 21실, 한식당, 연회장, 전통문화체험관

오동재 오동재 1.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394-5 2. 예약 및 전화문의: 061660-1000 3. 규모: 객실수 32실, 한식당, 연회장, 전통문화체험관, 패백실